

2019 제4차 네트워크 공동포럼

북한의 젠더정치 및 지역연구 협력방안

(통일연구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일시 19.11.8(금) 10:00~12:30

▣ 장소 서귀포시 WE 호텔 (회수동)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구분	시간	소요 시간		
1부 주제발표	10:00-10: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등록 및 소개 	
	10:20-11:20	6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현인애(이화여대 북한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북한의 여성노동과 젠더정치 (조정아, 통일연구원) • 발표 2 : 가족,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치 (이희영, 대구대학교) • 발표 3 : 제주 남북교류협력과 KINU-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협력 모색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휴식	11:20-11:30	10		
2부 종합토론	11:30~12:3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 최은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토론 2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토론 3 : 이금순(통일연구원/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찬 	



북한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¹⁾

조정아·이지순·이희영

<연구 개요>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북한 여성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중단되면서 국가와 가부장을 대신하여 온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 것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가정과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 각지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가며 생존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젠더관계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관계 등 가족 영역이나 시장활동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과 소비생활, 가치관, 이성관계와 섹슈얼리티 등 사회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의례를 강화하는 등 젠더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의식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차별적 사회통념과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온존한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젠더관계, 젠더 의식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한 시기,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우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젠더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및 담론 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생애사를 통해, 여성들이 구조적 젠더체계 속에서 어떠한 실천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북한 사회와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젠더정치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1) 본 발표 내용은 2019년 말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로 출간될 예정이므로, 인용은 보고서 출간 이후에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문에서 각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론적 관점과 주요 개념〉

□ ‘여성주의적 관점’의 북한 여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로, ‘여성’ 연구에서 ‘젠더’ 연구로 연구의 관점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시선에서, 이들의 경험에 착목하여 최근 북한의 젠더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이다.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와 여성의 젠더 주체화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 젠더와 젠더정치

이 연구에서는 ‘여성’ 혹은 ‘남성’을 구성해내는 힘, 현실 속에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모종의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젠더 개념에 착목한다. 젠더를 담론적, 역사적으로 생산된 효과로 보는 관점에서, 북한의 젠더 담론과 실태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젠더 차이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성적인 차이 자체가 어떻게 북한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이자 실천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한편, 젠더는 역할과 규범을 근거로 결정론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위되고 생산되는 그 무엇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젠더 수행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구조적 젠더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젠더 체계와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젠더 수행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젠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젠더정치를 여성과 남성들 간의 관계를 바꿔놓거나 혹은 영속화시키는 데 한정하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성차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핵심으로 젠더정치의 개념을 재설정한다. 이 연구에서 북한의 젠더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 사회 내의 성차를 둘러싼 국가의 기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젠더질서의 작동과 행위자들의 대응과 실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북한 젠더정치의 특징을 젠더/여성 정책 및 담론 차원과 북한 여성들의 실제 삶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 젠더/여성 정책과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의 연설문·담화·서한, 『로동신문』과 『조

선녀성』 등 공식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실제 삶 속에서 북한 여성들의 행위와 경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술생애사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최근에 탈북한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생애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면접을 실시하였던 여성 1명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 23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를 통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젠더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난 이전 시기 젠더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던 배급제를 대신하여, 시장의 확대를 거치면서 남성=공식노동, 여성=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분업체계가 젠더체계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이윤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남성이 담당하는 공식노동 영역에 주어진다. 이 위계적 성별분업 체계가 김정은 시대 젠더정치의 구조적 토대가 된다.

경제난 이전 시기, 세대주 중심과 정치적 지위에 따른 배급은 개별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물적 토대가 되었고, ‘동등한 공민’인 여성과 남성을 위계화하였다. 가구주의 의미는 세대를 대표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배급제는 사회주의 대가족의 아버지인 수령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와 남성이 여성을 ‘부양’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젠더화된 기제이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뒤이은 시장화로 배급제는 군이나 일부 관료, 일부 연합기업소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은 공식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남성 노동력의 이탈을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 ‘남성노동=공식부문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젠더 특성을 띠는 노동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젠더에 기초한 노동분업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또는 경제개방을 거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을 분석한 이승윤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 점진적 개혁 시기에 농촌 인력의 도시지역으로의 대거 이주와 국

유부와 비국유부의 이중구조가 맞물리면서, ‘국유기업노동=도시호구 노동자’, ‘비국유부문 노동=농민공’이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형성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체제 전환 초기에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었는데, 공식부문 일자리보다 소득이 높았던 비공식 근로자는 남성, 도시지역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젠더를 중심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는 공식노동 우위의 위계적 구조이다.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에서 행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부양’을 호명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대부분 경제적 가치는 공식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을 통해 창출된다. 이 전도된 관계, 허울과 실제의 불일치는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를 전복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젠더담론 상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정은 모성과 후대의 보육, 돌봄이라는 재생산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인정은 전문직을 비롯한 공식 부문 노동에 한정된다. 북한에서 가정의 생계와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이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노동에 기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여성들을 잉여노동력으로 간주하면서 각종 사회적 동원노동과 돌봄노동에 무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노동영역 내에도 여전히 강고한 성별분업과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공식 노동영역에서 경공업 등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배치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문직 여성의 사회진출과 간부 발탁을 독려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용이하지 않으며, ‘남성=관리자, 여성=일반노동자’라는 젠더위계가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식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공식노동 부문에서의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 대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경제공동체로 기능이 변화된 가족이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가족은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별화된 역할분담에 기초해 가족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수행해온 주체이다. 북한 사회에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가족은 '대가정'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노동력과 통치이데올로기를, 국가와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일체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여성들은 이 속에서 가족의 일원이 아닌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호명되었다. 그러나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가족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단위로 변화되었다.

경제공동체로서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취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족 안에서 세대주는 국가에 의해 공식직장에 불려나가고, 세대주를 대신해서 여성이 시장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공식노동부문에 여성 배제는 곧 노동의 긴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서 남성은 최소한 여성이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막아주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비공식영역에서 여성의 시장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시장경제활동에 권력이 개입되는데,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이 공식적 노동영역에서 직위를 얻는 대신 '남편 출세시키기'라는 전략을 활용한다. 여성들은 남편이 대학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 남편이 좋은 직업지위를 얻게 되면 남편의 권력을 활용하여 장사에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가족은 보다 많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족, 또는 여성들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이라는 젠더화된 분업구조와 공식노동영역 내의 성차별 구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국가 젠더담론의 호소처럼 '어머니되기'에 만족하거나 국가를 대신하여 대가정의 돌봄노동이나 대가없는 사회적 동원노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대신 공식노동으로부터의 배제와 열등한 지위를 오히려 '활용'하여 국가의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먹여살리고, 자신의 대리인으로 남편이 좋은 공식직업을 얻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

셋째, 가족 내의 젠더질서와 이를 유지하는 장치는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의 시장경험과 경제적 능력 강화가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 강화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위계적 관계의 약화,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는 여전히 사회주의 대가정의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 온전히 여성의 몫으

로 주어지는 가정 내 성별분업 구조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법 제정 등을 통해 가정폭력 등 반봉건적 요소의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이 당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향후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리면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 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결혼등록과 동거, 이혼 등 가족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배급제도의 약화는 국가 등록을 전제로 한 혼인제도의 쇠퇴로 이어져, 부모의 승인 하에 혼전동거를 하면서 결혼등록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성분과 정치적 계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권력을 교환하는 형태의 타 계층 간의 ‘통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러한 젠더정치에 대응하여 별거를 택하거나 결혼등록을 미루는 방식으로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해나가는 전략적 젠더수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와 정책을 가로지르는 여성들의 실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특정 시기에 여성들의 이혼을 허용하는 방침 제시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넷째, 젠더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은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제도/정책/관행을 넘나들며 다양한 실천을 하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갖춘 여성들이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담론, 정책은 국가의 강압이 아닌 스스로 규율하고 현실과 욕망을 조율하며 행위하는 여성들의 실천, 변화하는 젠더체계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여성들의 전략을 통해 구현되며, 그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는 굴절되고 변형된다.

북한의 여성들은 국가의 젠더담론에서 강조하는 헌신과 봉사의 심성을 갖춘, 수령/당과 일체가 된 대가정의 구성원이기보다는 경쟁과 이윤, 물질적 행복과 욕망, 개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실재한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사례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성의 반려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낭만적 연애’를 꿈꾸고, 폐쇄적인 성문화 속에서 사회적 허용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

혼을 이루고, 옷차림이나 소비활동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작은 리설주’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난 이후 출산을 저하로 형제가 많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외부 ‘드라마’와 ‘노래들’을 통해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하였으며, 달라진 교육환경 속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다루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환경이 당과 수령으로부터, 또한 남성의 그늘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실천 양상에서 계층과 세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젊은 세대일수록,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는 거리가 있는 계층에서, 외부사회의 정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에 민감한 접경지역이나 대도시 여성들의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양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섯째,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기존의 젠더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여성들의 생계활동 및 미래를 위한 노동을 비공식부문으로 취급하며 직업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제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 내에서 자의식 및 관계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등 새로운 흐름이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비가역적 변화’의 경로에 들어섰고, 그 변화의 동력은 북한 사회의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책임졌던 여성들의 고투이다.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의 활동 강화가 사회 전반적인 젠더 위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영주는 시장에 대한 권력 행사와 그에 따른 부의 창출이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권력 집단의 전유물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기존의 남성 권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애초에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생존이 남성과의 협력이나 남성에 대한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남성중심 질서가 와해되거나 균열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여성들이 시장노동에 의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경우 경제공동체인 개별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경제활동을 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남성의 지위 향상과 권력 강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이 가족관계 내의 권력구조나 사회 전체의 젠더관계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국한해서 볼 때 이러한 관측이 옳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남성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으로 구분되는 노동분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이와 관련된 젠더권력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 조치를 실시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힘이 특정한 국면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정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의 일부를 공식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대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젠더정치의 구조적 토대가 되는 노동분업 구조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흔들리면서 젠더권력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선행국가들의 경제체제의 전환이나 시장경제 도입 경험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난 이후 젠더 정치의 지형을 바꾸어낸 원동력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실천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보여주는 실천은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그것에 도전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새 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여성들의 젠더수행은 기존 젠더정치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가정경제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물적 토대로서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경제력을 갖추고 새로운 자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려고 하는 여성들의 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북한의 여성노동과 젠더정치

조정아
(통일연구원)

북한의 여성노동과 젠더정치

조정아(통일연구원)

1. 여성들의 직장 노동과 젠더 위계

가. 성별 노동분업과 성차별 구조

□ 여성의 직업 선택과 성별 노동분업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직업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전문직 여성들의 모범사례를 내세우며 여성들을 공식노동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남성은 공식노동, 여성은 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노동분업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공식노동 내에서도 여성노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혼여성들은 뇌물, 질병, 가짜결혼등의 방법을 써서 공식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시장활동을 뛰어든다. 결혼 전에 공식직장에 다녔던 여성들도 결혼을 하면 대부분 공식직장을 그만두고 비공식부문에서 장사 등의 생계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식노동 부문에서 여성들의 이탈과 ‘남성노동=공식부문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성별노동분업 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식노동에서 여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배급 중단 또는 감소로 인해 공식노동의 유인이 사라진 반면, 시장과 연계한 비공식부문의 노동은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후 배급을 통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공식직업이 흔치 않게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공식부문 내의 강고한 성별분업구조에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은 직종, 그 중에서도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에 편중되어 배치된다. 공식노동영역의 성별분업 구조는 여성들의 직업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인터뷰 과정 중 북한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직업선택의 폭이 좁다보니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은 직업진로와 관련해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간부집 자녀

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여성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관찰은 직업이라면 의사도 관찰고 선생님도 관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에는 간호사도 그래도 **깔끔하고 여자다운** 흰 옷 입었으니까 관찰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회계원. 일단은 **일하는 그제 깨끗해야**, 일하는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환경, 환경이 좀 깔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로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도 교원 같은 거 하면 일단 돈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학부형들이 자주 막 뭐 시켜달라 어쩌라 하면 진짜 엄청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그것대로 관찰은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또 관찰죠. 국가에서 딱히 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그래도 선생님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 자기 그렇게 있잖아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계원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다루니까 거기서 자기가 좀만 어떻게 머리만 쓰면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 직장 내 성차별과 유리천장

면담에 참여했던 여성들 중에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대학공부 뒷바라지를 하거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여성들이 많았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들 중에도 북한의 남녀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 후에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올려세우겠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출세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대신 남편을 출세시키는 것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권력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공적 노동영역에서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장려되고, 특히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장식용 “병풍”을 크게 벗어날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성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별로 뭐 높은 직위에 앉는 게 진짜 없어요. 법관들도 그래. 법 쪽에도 그렇고 뭐 군관이라든가 어쨌든 기관직에는 몽땅 다 남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 보면은 큰 장사를 하던 뭐, 큰 장사꾼이라고 볼 때 여자들이 많지 법 쪽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중략) 여자라면 여자는 큰 간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한국]는 프로수는 작아도 그래도 보면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큰 간부는 다 남자들이 하는 거로 보고. 어쨌든 여기[한국]서는 좀 평등한 게 많은 거 같아요. 북한에는 여자들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사례 3 구술녹취록, 2019/37, 41)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분위기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여성을 많이 내세워준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전문직이었던 한 여성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기관에서 무조건 간부 중 30%를 여성으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군사 복무를 한 대학졸업생들을 기관장, 당비서 등 간부직에 대거 발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일종의 여성할당제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 다양한 공식부문의 여성 노동과 직장 내 성별분업

□ 생산 ‘전투’가 벌어지는 경공업 공장과 노동의 젠더화

공식노동 부문 중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여성작업장은 경공업과 식료부문 공장들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산업부문 발전을 강조하면서, 관련 공장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전투’가 이루어지는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지방공장처럼 노동자들이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배치되는 젠더특성을 보인다. 이는 육체적 힘을 요하는 기계공업 등 중공업 부문의 노동과 달리, 경공업 부문 노동이 세밀한 작업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섬세함과 장시간의 반복적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한 노동이어서 여성의 특성에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노동강도가 강해서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신발공장, 방직공장 등에서 여성노동자-소수의 남성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직장/국가가 결혼식상을 차려주거나 결혼을 주선하는 방식의 젠더정치를 볼 수 있었다.

□ 작업장의 젠더위계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했던 직장은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장이지만, 소수의 관리자들도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나이 많은 남성 관리자들이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위계와 연령에 따른 위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젠더위계구조이다. 힘을 가진 남성이라는 젠더권력은 당원이라는 정치권력과 결합되어 여성노동자들의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여소대장 없고 남자소대장. 왜인가 하면 그 여자들 입살이 세니까, 거반 다 아줌마들이 돼서 입살이 세니까, 말이 많고 입살이 세고 드살이 세니까 남자 이렇게 소대를 세워 놓는 거예요. 남자를 세워 놓는 거예요. 거기 법은... 거기에 직장에 법은 무조건 소

대장 남자에요. 여자 없어요. 그리고 당원들 소대장 시켜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제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대장 시키지, 여느 아줌마는 여자 소대장 안돼요. (중략) [통제 방법은] 소대장이가 말 못하게 하지. 말 못하게 하고 좀 상스럽게 욕하죠. 상스럽게 욕하고 말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동원이 많거든요. 돌격대 동원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동원 내보내요.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하죠. 소대장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점수 따겠으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폭력 쓰거나 그런 거는 혹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드살짝 세가지고 폭력을 못해요. 그게 좀 우리 컨베아 운전공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드살이 세요. 그리고 또 과부들이 많고.

□ 공식직장 노동과 비공식노동의 병행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큰 공장들이나 지방의 경공업, 식료공장들과 달리, 많은 지방의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배급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대신 ‘시간’을 준다. 여성들의 사례는 장사 이외에도 서비스업종이나 가내수공업 부문에서 여성의 비공식적 노동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졸업하면]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별로 없어... 한 때 그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중국에서 이렇게 모자랑 가발이랑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애들이 찾아가지고 써비..., 그런 거 보고 써비일이라고 하는데, 써비 그거 모자 한개 뜨면 뭐 8천원. 8천원씩 받고 그걸 온밤 떠요, 앉아서. 이렇게 온밤 떠가지고 눈이 이렇게 충혈이 지고 그래가지고 8천원 받고 그걸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일 매일 8천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 입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머리칼도 팔아가지고. 그게 한창 지금 또 맨 머리칼 장사가 많아가지고, 머리 긴 사람은 “센치당 얼마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다 속아서 모아 놓고 해가지고 그거 또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 전문직 여성의 노동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가급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거나 장사나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비해서, 전문직 여성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을 배치하지만, 대학 졸업생은 간부대상자로 도·시·군당의 간부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대부분의 전문직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전문직 여성의 노동이 일반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구분되는 점은 자신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식적 소득 이외에 직업의 유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래서 엄청 진짜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남한)에서 학부형들이 오히려 교사들한테 가서 뭐 잘 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아니거든요. 학부형들이 교사한테 진짜... 교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교사에게 자기 애를 전적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엄청 교사로서 긍지감, 자부심 이런 게 엄청 높잖아요.

2. 시장 경험과 여성들의 자의식 변화

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시장 활동

□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과 여성의 역할

경제난과 시장화 이후 가족은 생존의 단위이자 경제공동체가 되었다.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던 국가 배급체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개인은 개별가족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혈육인 가족들 밖에 없다는 체험은 당과 국가에 대한 암묵적인 불신과 회의의 정서를 형성했다. 결혼 중매시장에서 '당일군'의 지위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2000년대 들어 장마당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여성들은 제도화된 시장을 매개로 합법, 비법의 경계를 오가며 각 분야별 물품을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연구에서도 상층계급의 대학생과 전업주부 및 군인가족, 일부 공식직장의 노동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장사를 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교사, 의사 등의 직업 활동을 하면서 개별 과외활동이나 치료 활동을 하는 반면, 중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식직장에 적을 걸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어머니 혹은 언니, 친구들과 연계하여 상업 활동을 하였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장사를 해서 가족생활에 보태고, 자신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각종 장사를 통해 가족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별 가족이 여성의 재생산 및 생산노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라고 하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 직접 결합되었던 수령-당-인민의 관계가 시장 활동을 통해 침윤된 반면, 개별 가족단위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변화를 보여준다.

□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시장 활동

사례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시장 활동은 지방 소도시의 장마당에서 평양 부자동네를 장악한 국제적 거래까지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구조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평양의 경우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한국물건’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일본 및 중국 제품,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 등을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거래하는 큰손과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있다. 평양과 대도시에서는 유아들의 분유에서 독일제 의약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 등의 대방과 거래하는 큰 손들은 남자인 경우가 많지만, 큰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옷을 비롯한 소비재와 약초, 광물 등이 국경 밀수를 통해 거래된다.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음식장사나 재배한 농산물 거래에서 약간의 돈을 모으거나 빌려서 약초, 광물 중간유통을 하는 등 자본의 규모에 따라 중층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화 이후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장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활동이며, 성인 남성들의 참여는 금지되고 있다. 남성들 중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힌 영예군인들만 극소수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온갖 종류의 도매업부터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까지 시장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가두여성’들이었다.

약이라는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중약, 중국약으로부터 해서 이게 점점 한 300가지 수로 약이 많습시다, 수가. 액체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25% 포도당, 그 다음에 종합아미노산, 물리아민 이런 액체로... 비타민제 해서 액체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환자들 치료하면서 주사하매 점적[링거액]도 달고 그 다음에 부항도 붙여주고 뜸도 따주고 이렇게 치료를 했습시다, 내가. 약도 팔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 왜 했는가? 내가 임상의전 내과의사 편을 자체 공부를 했던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의사다나니까나 아버지가 다 배워줬단 말입니다. 침혈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리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약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거 연한 있습니다, 내가. 거의 한 10년 했습시다, 내가 장사를.

□ ‘남편 출세시키기’를 통한 가족 내 이중경제전략

사례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교육과 간접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결혼한 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는 온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 성공의 길이 제한된 북한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이 공식적 노동 영역에서 성공을 도모하기보다는 돈을 벌어 남편을 공부시키고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얻도록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선택하고 있다. 중매 과정에서도 여성은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남성들

은 직업(당, 법, 경찰 계통)에 배치 받아서 돈도 벌고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이상적인 부부의 역할로 생각한다. 따라서 돈 많은 여성과 출세할 수 있는 조건(토대와 학력)을 갖춘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생활전략은 남편의 출세를 통한 대리 명예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남편이 좋은 직위에 배치되면 가족 전체의 명예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남편의 권력이라는 ‘빡’을 통해서 여성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화를 경유하면서 이전 시기와 달리 가족의 경제공동체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압축적인 사회변동을 통해 단기간에 ‘북한식 성역할 분담’이 개별 가족단위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여성은 비공식 노동, 남성은 공식노동이라는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그런데 장마당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자원 동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가족관계 안팎에서 남성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여성들의 시장노동에 의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경우 경제공동체인 개별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경제활동을 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남성의 직위 향상과 권력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시장 경제활동이 가족관계 내의 권력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시장경험과 경제적 능력 강화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가족관계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나. 시장 경험을 통한 자의식의 변화

□ 비공식 노동 수입의 증가와 가족 내 발언권

경제난 이후 30여년이 되도록 여성들의 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은 북한 사회에서 공식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여성들은 시장 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비법 활동(뇌물, 사기, 협박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빈번하게 개인적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들이 남편을 공식부문에 출세시키려는 이유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들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부재하지만, 2000년대 북한의 가구별 수입에서 여성들의 장사활동으로 번 수입이 남편에 의한 공식 수입을 훨씬 능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물적 토대가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수시로 오가며 돈을 벌고 있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봉건적인 요구'에 암묵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전의 관습대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외도 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례연구에 참여한 현재 30대 여성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의 시장 경험은 적어도 '자의식'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소리를 많이 치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괜찮죠. 우리 엄마네처럼 무턱대고 순종하고 살던 시대는 다른데. 칼자루가 아무튼 여자한테 쥐여 있으니깐.

□ 주도권의 인정과 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각축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형식적인 '칭송'에 머무르고 있지만, 가족관계 내에서의 변화는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큰돈을 버는 경우 경제적 역할에 대한 가족의 인정을 얻게 되고 가족 내 젠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위계적 관계가 약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역전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들을 지칭하는 '멍멍이'나 '낮전등' 혹은 '불편' 등의 용어가 북한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은 사회의 공식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비웃음'이며, 자신들의 생계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이중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국가나 당의 주요 기관에 배치된 소수의 남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소의 남성들은 자신의 배급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상실한 것이며, 가족 내에서 이전과 같은 권위를 부리며 여성들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현모양처'를 요구하며 가족 내에서 권위적인 행동,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남성들이 공동운명체인 가족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변화된 성역할을 수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젊은 세대 남성들의 경우 '돈 많은 여성'을 아내로 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나, 결혼 시장에서 장사 수완이 있는 여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큰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 결혼하여 가사 노동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대체하겠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과정에서 장사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했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 또는 '부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것은 북한에서 국가가 시장 활동을 하는 가두여성들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북한 여성들 스스로 이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동일한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10여년 이상 장사를 하며 살아온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장사활동을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경우 이를 대체할 자신들의 ‘단어’를 갖지 못한 결과이다. 또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양’이라고 대응하는 것은 실제 여성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 체계에서 부양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재현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에서는 이처럼 한편으로 여성들의 생계활동 및 미래를 위한 노동을 비공식부문으로 취급하며 직업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제와, 다른 한편으로 이미 운명적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 내에서 자의식 및 관계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등의 새로운 흐름이 각축하고 있다.

□ 자율성의 증대와 새로운 실천들

북한에서 국가는 북한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강조(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제정)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젠더 질서를 재구축하였다. 여성들이 ‘낙태의 권리’를 갖지만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다산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성별화된 역할에 기초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정의 배경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방침들이 관철되면서 여성들의 자율적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능력 및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기존의 남편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일상의 가치가 형성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의식적 결합이 느슨해지는 동시에 ‘자율성’이 커진 것이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시집 가족들의 요구나 개입 혹은 남편의 외도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혼을 막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



북한의 가족,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치

이희영
(대구대학교)

북한의 가족,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치

이희영(대구대학교)

1. 사회주의 대가정의 약화와 가족의 재구성

가. '정상 결혼'에 대한 선망과 변화하는 혼인 양식들

□ 상층계급의 새로운 결혼 문화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대다수는 20-30대의 나이로, 북한에서 10대와 20대에 시장화와 김정은 시대를 경험한 여성들이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남성과 여성의 토대와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중매결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애결혼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반역자 등이 없는 '혁명가' 집안으로 토대가 확실해야 하고, 당원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여기에 대학을 나와서 당일군, 법일군 등의 권력을 가진 직장에 배치된 경우 최상층의 집안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비슷한 집안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제비는 제비끼리, 까치는 까치끼리'라는 혼인의 규범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는 한쪽 집안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쪽 집안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최저의 행위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남성이 집을 준비하고 여성은 '5장 6기'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양가 가족들의 권력과 경제력이 상당한 대도시 상층계급의 경우 결혼식 비용과 결혼 후 살게 될 집과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비용 등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책임지는 문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결혼문화의 형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녀 성별에 상관 없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집이 아닌 결혼 서비스로 특화된 공간에서 혼인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양 등의 대도시 결혼문화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연애가 일반화되었고, 토대와 권력을 따지는 상위 20-30%의 집안을 제외한 대다수 남녀가 연애결혼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여성들도 당원인 경우 간부직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입당을 위해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평균 결혼 연령도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대도시 중상층계급 여성들 내에서는 결혼연령, 결혼문화, 결혼 이후의 사회활동을 위한 삶의 계획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평백성’들의 실용적 혼인의 양상

시장화가 전면화된 2000년대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연애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도시와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결혼은 남녀의 사정을 아는 친척이나 친지, 직장동료 혹은 동네 이웃 등의 중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중매결혼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조건이 만남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돈과 생활력, 남성의 직업, 토대, 능력이 교환된다. 여성들이 보는 배우자의 조건은 돈, 배경, 발전가능성이다. 돈이 많거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데, 외화벌이 이외에도 법관, 군관, 안전원, 보위부원 같은 “정복 입은 사람들”과 간부가 이에 해당한다. 운전수나 의사 같이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여성들이 배우자 직업으로 선호한다. 배경으로는 집안의 토대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본다. 경제난 이후 당원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권력이 이전 시기처럼 절대시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당성을 통해 누렸던 혜택이 정치적 권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본들을 획득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 당원이 되어야 하고, 대학 졸업자이거나 여성이 뒷바라지를 해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것을 의미한다.

□ 결혼제도의 이완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 담론 속에서도 세포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거나 이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행위는 결혼 기피로,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과 결혼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탈북여성들의 구술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젠더구조와 관계가 있다.

우리 또래 보게 되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사회 나가서 장사를 어떻게 제 손으로 벌어가지고, 뭐 시집갈 생각도 안하는 거 같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시집가서... 내 친구들도 다 시집가서 애 낳고... 처녀 때는 진짜 멋있게 하고 막 그렇게 시집가서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 보고 엄마들이 막 “야, 절대로 시집가서 너무 너무 힘들게 살 바에는 시집가지 말고 혼자서 살면서 그냥 장사나 해서 혼자 먹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라고. 시집갈 생각도 좀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시집장가를 가자고 해도 뭐 갖춘 게 없고 하니까, 뭐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가는 거죠. 여자도 못가고 남자도 못가고.

결혼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혼전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후에도 자녀를 낳기 전까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혼전동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남한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될 때 특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뒤따른다.

결혼을 미루고 혼전동거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혼인에 대한 국가의 인정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난 이후 유명무실화된 배급제도로 인해 남성 가부장의 가족부양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난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도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가족 내 위계질서를 구성하고, 성별화된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중심 기제였다. 북한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혼등록의 연기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가부장제가 통제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 성분-당원제도를 횡단하는 ‘통혼’의 증가

북한 사회의 결혼문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대를 기본으로 한 권력 배분이 상대화된 점이다. 이전의 경우 수령제도의 핵심인 성분-당원제도에 의해 직장 배치와 혼인이 엄격히 이루어진 반면, 1990년대의 식량난을 거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방침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 월북자 집안이나 귀국자 집안(중국이나 일본에서 해방 혹은 전쟁 전후로 이주한 가족들)은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주요한 직장에 배치되지 못했으며, 혼인관계에서도 통혼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경제력을 가진 귀국자들이 각종 합작회사 등을 통해 당과 군대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주요 직위에 배치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토대는 귀국자 집안이지만 경제력을 인정받아 사회적 권력도 가지게 된 것이다. 비록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까치와 제비” 사이의 통혼이 이루어지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중하층계급의 혼인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우 경제력이나 권력이 있지만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남성과 ‘통혼’하기도 한다. 이것은 과거부터 있어온 혼인의 관습들이지만 식량난과 장사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층 사이의 혼인이 확대되는 등 실용주의적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적대계급 출신의 여성들이 시장을 통해 돈을 벌어서 토대가 좋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토대가 나쁘고 장사를 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던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장사수완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남편을 출세시킬 수 있는 자본과 인적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선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나.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의 균열들

□ 사회주의 대가정과 변화된 실천들

2000년대 북한에서 결혼한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는 여전히 사회주의 대가정의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개인은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인민으로서 개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북한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전사를 양성하고, 보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북한의 주요 사전에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정의는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듯이 개별 가족 내에 ‘아버지’는 부재하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가족 내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반면 여성에게는 가사노동과 양육 및 가두노동을 수행하며, 남편을 공대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사회적 규범과 분위기 속에서 평양과 대도시의 상층계급 여성들은 남편의 직장을 통해 받는 배급 및 물자에 의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가사노동과 양육에 전념하는 반면, 인민반 활동을 통한 혁명 사업에서는 빠져있다. 인민반 활동에 나오도록 ‘문을 두드리는 성가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의 배급과 직장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는 북한 내 상층계급의 가족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혁명적 현모양처’의 규범이 관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등을 통해 부모 시대와 같은 남편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는 30대 부부들 사이에서 ‘구시대’의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대 때 같아도 막 같이 어디를 놀러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부간에 그저 어디를 부부 부부끼리 해가지고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뭐 사람들 있는데도 그저, 옛날에는 “여보 당신” 했다면, 그저 뭐 “아무개야 아무개야” 와이프 보고도 와이프 이름 부르고. “우리 색시 우리 색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러는 것도 많고. 아버지 어머니 대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여보 당신” 그저 이거면 끝인데, 지금 세대는 안 그런 거 같아요.

□ 고통과 강압으로 유지되는 '가정의 혁명화'

사례연구에 참여한 중하층 기혼여성들과 결혼 경험 없이 남한으로 온 20대 여성들의 어머니는 결혼 관계에서 세 가지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경험을 보여준다. 배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작은 땅에서라도 농사를 짓거나, 먹고 입을 것을 절약하여 국수장사, 옷장사, 신발장사 등 낮은 수준의 장사에서 중국 밀무역에 이르는 경제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구술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상당수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을 담고 있었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가족 내에서 여성들은 가사노동, 양육, 장사활동을 통해 자녀와 남편을 부양하고, 여성동맹과 인민반의 동원 노동을 감당하지만, 남성 중심의 국가가부장제에 의해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시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도 그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인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휘둘러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가족관계 내에서의 차별로 인한 상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여성들의 의무를 “내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여겼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 또한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북한 가족의 행위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벌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내세워주고 자식을 키워서 내세워주고 자식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도 남편을 더 우선시 하거든요. 여자는 그냥 내가 응당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이걸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여자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남편에 대한 우대감이 있고, 여자는 그런 우대감이 없어요.

□ 배급제의 흔적과 결혼제도의 변화들

사례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사회에서는 배급제라고 하는 국가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었지만, 이에 의한 통제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남성들은 배급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적 노동'을 인정받는 반면, 직장의 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기혼여성들은 장사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족 내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을 고려한 점이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의무를 재생산 노동에 결박시키는 성별화된 제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배급제가 무너진 현재 북한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통제체제와 젠더체제가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전 시기 배급제도를 통해 남성 중심의 성별화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경제난 이후 배급이 유명무실화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남성 중심의 규범이 강조되는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급제도의 약화는 국가 등록을 전제로 한 혼인제도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혼전동거와 결혼등록 연기 현상의 확산은 배급과 결합되어 있던 결혼등록과 출생등록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사라지면서 사회적 통제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출생등록이 되어야 자녀들이 각종 기념일에 배부되는 ‘지도자 동지의 선물’을 받고,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때 출생등록과 결혼등록을 함께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사회주의 대 가정’의 물질 기반이 실질적으로 쇠퇴했지만 ‘선물 정치’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등록을 미루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가족 구성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였고,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예측가능하지 않게 된 반면, 당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들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런데 결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거생활을 통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등록을 미루는 최근의 관행들은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의 전략적 젠더수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경제난 이후 가족해체가 확대되자 당에서는 재생산과 양육을 담당할 가족유지를 위해 이혼을 금지하는 방침들을 내려 보내고, 이와 같은 방침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결혼 등록 자체를 연기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유행이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고를 법적신고 해가지고 결혼등록하면은... 북한은 이혼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처럼 둘이 동의만 하면 이혼하기가 험하면 결혼도 뭐 이런데.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실지로 말하면 살다가 생활에 부딪혀가지고 막 갈라지겠다는 게 좀 많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이제는 그 결혼등록을 하기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애를 낳고 한 2~3년 살아보고 다른 게 없으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그냥 애를 낳고 살다가도 벌써 저처럼 이런 경우가 부닥치면 결혼신고 안 하면 그냥 이혼이 없이 헤어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인츰 결혼신고하기를 많이 꺼려...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냥 그게 뭐... 한 5년 전부터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사회의 혁명가족은 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으로 정착되었으나 ‘사회주의 대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개별 가족은 혁명적 전사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이를 위한 물적, 정서적 노동을 수행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있다. 따라서 개인들의 친밀성이 존중될 수 있는 사적의 공간이 부재하며, 국가는 언제나 ‘단속’을 통해 개인의 섹슈얼리티에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공적 서사에서도 여전히 ‘혁명적 현모양처’에 의한 가족의 혁명화 규범이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의 의례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가족의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생산노동에 대한 사후적 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2. ‘낭만적 사랑’과 세대 문화

가. ‘낭만적 사랑’과 친밀성의 장소들

□ 사랑노래, 사랑영화와 ‘낭만적 사랑’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연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진정한 사랑은 ‘혁명적 동지애’로 그려져왔다. 그런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현 시기 북한 여성들이 들려주는 연애담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동지애적 사랑과 다를 뿐만 아니라, 40대 여성들의 그것과도 다르다. 20대 여성들의 연애담에서는 기든스(A. Giddens)가 ‘낭만적 사랑’이라 명명한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전하는 매체는 바로 외부사회로부터 유입된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들이다. 경제난 시기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물품을 들여왔는데, 한국, 중국, 미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와, 이를 재생하는 디지털기기도 그것에 포함되었다. 이 노래와 영상물들은 각지로 퍼진 거래선을 타고 전국으로 유통되었고, 북한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새로운 문화는 연애 관계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섹슈얼리티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남한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북한 매체에서는 보기 드문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과 낭만적 연인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여준다. 남한 영상물이 보여주는 사랑의 정서는 북한 젊은 여성들의 정서에 반영되고, 영상물이 보여주는 남녀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방식은 북한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갠 세대”의

행동양식을 만들어낸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남한이나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녀의 행동방식, 예를 들어 남자에게 대항하는 여성의 행동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남성의 행동에 주목하고 북한 남성들의 행동양식과 비교한다.

우리 시대 와서는 조금 깻어요. 왜인가 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보는 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국드라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녹화물이란 게 많이 들어와요, 비법으로. 그런 거 보는 애들, 지금 젊은 애들 다 그거 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거 보면 조금 깻 거죠. 조금 나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들었다 났다 하죠, 여자를. 막 무시하고 깻밧고 그런 거 있어요.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적으로 표현되며 또래들 속에서 공감을 얻는다. 이런 힘들에 의해 ‘낭만적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합된다. 이전 세대가 중매를 통해 상대방이 지닌 ‘조건’에 기반한 결혼을 했다면, 젊은 세대는 ‘사랑’을 결혼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상당수의 20대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의 실천을 결혼이라는 주요한 생애전환점으로 연결지며 자기 삶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사랑의 성취로서의 결혼과 이후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었다.

□ 연애와 친밀성의 장소

낭만적 사랑의 특징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서의 친밀성’은 데이트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 연인들의 데이트 양상은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기성세대의 데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원이나 가로등 아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최근 청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해졌다. 특히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 들어선 유희장, 봉사센터,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영화관, 노래방 등의 놀이·문화 공간은 젊은 세대들의 데이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별달리 데이트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연애하는 청년 남녀들은 동네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이나 다른 지역의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

최근에는 중국영화, 한국드라마 같은 외부문화의 영향으로 과감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북한에는 교제를 하는 남녀간에 성적인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제하는 남녀간의 스킨십과 혼전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과 같

은 대도시나 중국과 인접한 접경도시지역에서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연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남자 있으면 남자친구 같이 잘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자고 그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헤어졌다 해도 누구... 헤어졌구나. “남자친구 또 헤어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는 남자 친하면 그건 그냥 같이 사는 거라 보거든요. 친구라 안 하고 “새서방이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신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붙어 다니다 떨어져...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를 한 세 번 정도 교체했죠. 신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헤어지고, 또 신랑이다... 재는 남자를 너무 많이 했다고. 남자들 자체가 더럽다고. “너 몸이 더럽다”고. 벌써 세 명 정도 이렇게 교체한 정도면 더럽다는 인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진짜로 만나면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는 남자친구잖아요. 헤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헤어지면은 큰 창피로 생각하고 여자는 완전 그 수치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중략) (남자는)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진짜 너무 많이 그러면 “재 완전 바람둥이다” 이렇게 인식은 가지지만은 “남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이 넘어가거든요. 남자가 그렇지.

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몸의 규율

□ 성교육과 성 지식의 습득

자유로운 연애와 스킨십, 혼전동거 등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새로운 실천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관련 교육내용이 거의 없다.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중 ‘기초기술’ 과목에서 여학생에 한해서 ‘여성위생상식’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여성들도 대부분 학교 재학 시절 월경, 임신과 출산, 성지식, 피임 등을 다루는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구술하였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 여성들은 성관계, 피임, 낙태, 임신, 출산 관련 지식을 어머니, 여자친구, 아는 언니, 동네 아주머니 등 주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습득한다. 가장 확실한 정보원은 연애할 나이의 “언니들”이다.

□ 피임과 낙태

기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를 국가권력의 인구통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미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피임시술 방법으로 자궁내장치가 보급되었고, 인구증가 문제로 인해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혼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미혼여성의 피임이나 낙태 문제는 공식담론 상에서는 거론되지 않는다. 대학생의 경우,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면 퇴학조치된다는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혼전임신은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고 때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가 이성관계에 보다 개방적이 되면서 혼전성관계와 이에 따르는 피임, 낙태 문제는 북한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전에는 혼전성관계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애관계에서 피임을 하고 혼전성관계를 한다는 것이다. 혼전성관계가 늘어났지만, 혼전성관계에는 여성에게 “책임이 엄청 따르기” 때문에 “남자랑 한번 자려면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상황”이다. 혼전성관계에서 남성들이 피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 된다.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피임방법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피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피임약과 “고리”라고 불리는 자궁내장치이다. 콘돔과 같은 남성용 피임기구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피임약은 동네의 “약집”에서 살 수 있지만, 복용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이나 소문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북한 사회에서 미혼여성이 몸 안에 장치를 시술하는 형태의 피임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어서, 피임을 못한 여성이 연애과정 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한다. “북한도 연애한 사람과 굳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미혼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한다. 낙태는 대부분 병원이 아닌 개인의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불러서 낙태수술을 한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또래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식담론에서 수용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실천들을 해나간다. 허가받은 병원이 아닌 비공식 의료체계를 통한 피임과 낙태는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이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북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피임시술과 낙태수술은 주로 공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가 아니라 비공식 의료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생문제나 의료사고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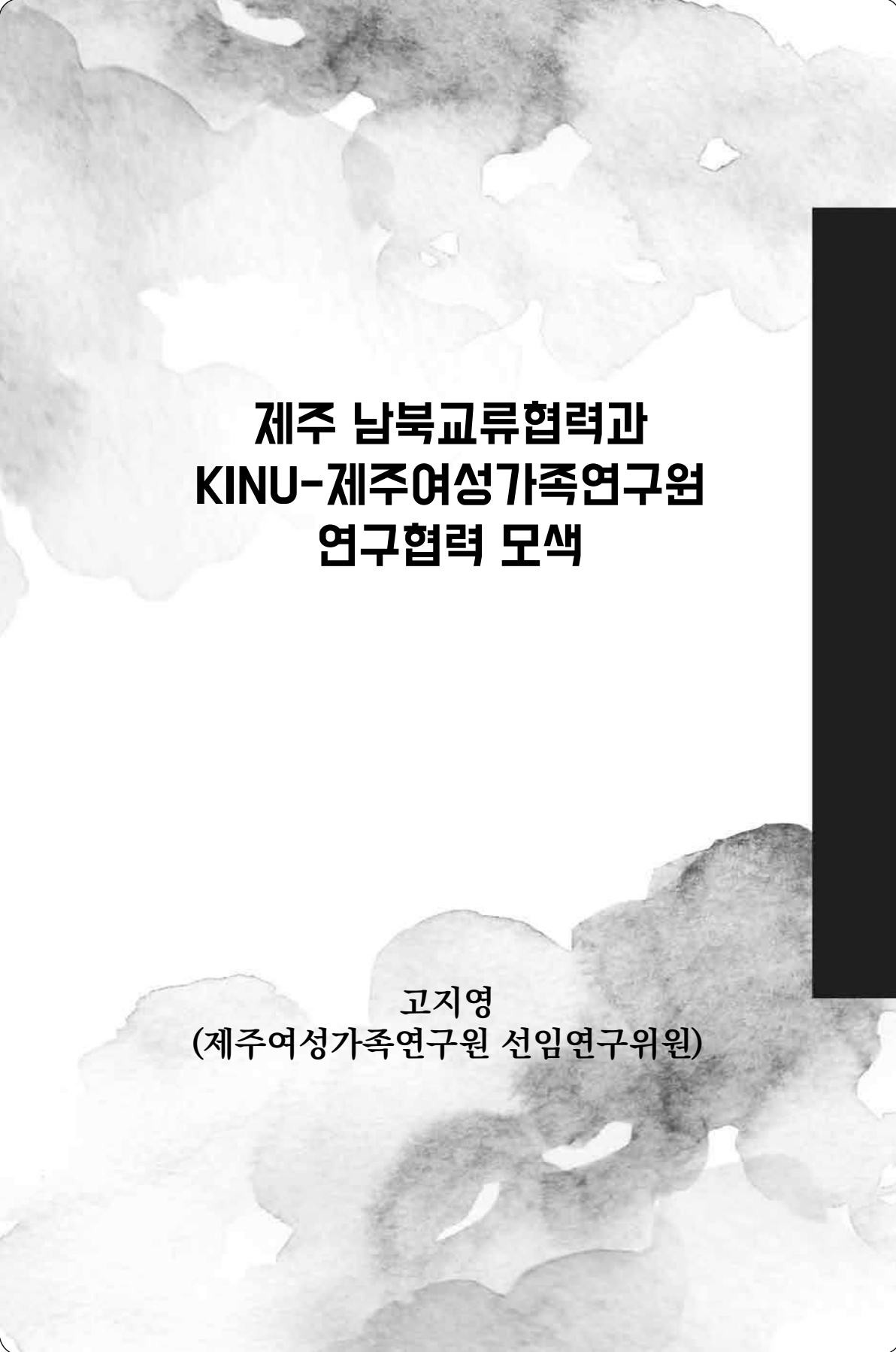
협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공식담론과 사회적 허용 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천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용모 단속과 ‘스타일’의 추구

북한 여성들은 영상매체 속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옷차림이다. 북한 여성들은 남한 드라마 속 남한 여성의 외모를 재현하고, 남한 중산층 가정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집을 꾸미고, 자신의 연인에게 상냥한 서울 말투로 얘기를 걸어보는 방식으로 영상매체 속의 가상현실을 북한사회에서 현실화한다. 북한에서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은 개인의 자기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관리와 규율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몸과 외모를 치장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퇴폐주의 외래문화”의 산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화장품과 의류 등 경공업 부문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의 외모와 관련된 소비품도 늘어났다. 탈북여성들에게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은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최근 북한여성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준 사건은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등장이다.

북한에서 모란봉악단에 이런 거의 나체...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만 걸쳐 이런 옷...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는 막 모란봉악단이 그렇게 되고 리설주가 탁 등장을 했는데, 그 어디야? 아마 과학자거리인지 어디매인지 이렇게 그 테이프 이거 끊을 때 있잖아요. 준공식 할 때, 딱 끊을 때 그 입고 나왔던 그 옷이 이게 짧은 스커트 치마에다가 이렇게 녹색인데, 이렇게 꼭 묶으면 툭 한 건데. 북한에서 사실 옷을 막 진짜 그냥 정장에 거무튀튀한 옷에 항상 뭐 이런 저고리 아니면 그렇게 입었었는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의, 뭐 수령의 진짜 와이프가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왔단니까 막 모두 여자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보다. “어머, 저거 뭐야? 이게 뭐야?”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너무 황당해서 막 그러다가 옷차림새 그게 보여주는 게, 그럼 북한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우리도 그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여성의 외모에 대한 국가 통제의 틈은 개성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이전에도 ‘추세’라고 불리는, 주민들의 차림새와 소비풍조에서 일정한 생활양식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현상이 존재했다. 이전 시기의 ‘추세’ 현상이 집단적 유행을 따르는 행위에 방점이 두어졌다면, 최근 여성들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은 보다 개별화된 자기표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남북교류협력과
KINU-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협력 모색**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 남북교류협력과 KINU-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협력 모색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 통일, 평화, 제주, 여성, 이 단어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무엇일까? 통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될 것임
- 이 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체계적 논의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제주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의 의미,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여성·가족 관점의 과제 개발을 위해 통일연구원과의 연구협력 지점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함

2. 제주 남북교류협력, 분단 유산의 치유 노력, 그리고 평화의 섬

-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나 교류협력은 어느 지역에서나 중요하지만 제주에서의 이 논의는 각별한 의미가 있음
- 한라에서 백두까지 : 제주는 남북교류와 최근 신남북관계의 상징적 이미지로 각인
 - 그동안 남북 교류의 장에서 '제주'와 '한라산'은 남북 정상과 북측 인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남북의 지리적 하나됨의 실질적 표상으로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져 왔고, 2018년 형성된 신남북관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재부상하였음(고성준 외, 2018)
 - “한라산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싶다” : 6.15 남북정상회담(2000) 이후 방북한 남측 언론사장단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
 - “백두산과 한라산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으면 그것이 곧 통합”: 2000년 김용순 특사의 제주 방문에 동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림동욱 부위원장 발언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 등정에서 '제주' 언급, 11월 북측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을 보내고, 북한 로동신문에 “제주도귤” 기사화 등, 제주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재부상
- 제주는 남북의 지리적 하나됨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감귤보내기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제주도가 1999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2월까지 12회에 걸쳐 매년 4,000톤 규모의 감귤 보내기 사업을 지속했는데 이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게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임
 - 감귤보내기 사업은 이 전 중앙정부와 NGO 중심의 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음. 이에, 제주도가 1999년 11월 27일 '북한 감귤보내기 제주도 민운동본부'를 출범한 시점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어느정도 수용되고 있음(나용우 외, 2018). 또한 당시 과잉 생산되는 감귤의 가격 불안정을 안고 있는 농가 입장을 고려하고, 북한에서도 지역특산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의 호혜적 교류협력의 의미를 지닌 사업으로 평가됨(고성준 외, 2018)
- 제주는 감귤보내기사업의 전개와 2000년 6.15 정상회의 이후 한라-백두의 상징성을 더하면서 남북회담 개최지 등으로 북한의 호의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제주도민 800여 명의 대규모 방북 역사를 낳음
 - 2000년 가을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개최, 2003년 민간주도의 최초의 남북민간체육문화행사인 “민족통일평화 체육문화 축전” 개최로 190여 명의 북한 참가자들의 제주 방문
 - 2002~2007년 4차례 걸친 제주도민 대표단 총 800여 명의 방북
- 남북 분단의 유산(제주 4.3), 화해와 상생의 치유를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과 경험
 - 제주도민은 남북 분단의 유산으로 제주 사회에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긴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제주는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주도내 진보와 보수, 여와 야, 과거의 좌와 우, 가해자와 피해자, 노년세대와 청장년세대 간 높은 수준의 화해협력과 공존의 정신으로 한국에서 사회치유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 2015)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4.3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와 번영의 <제주포럼>의 지속적 개최 노력 등을 통해 제주는 2005년 중앙정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는 데 이름(고성준 외, 2018)

○ 민선 7기 제주, 남북교류협력 5+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통일 교육 등 추진

- 민선6기 남북교류협력사업: 한라-백두의 상징성, 감귤, 평화의 섬 등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특화력에 기초해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제주와 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5대 사업을 제안함 - △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추진, △ 제주포럼 북한인사 초청
- 제주 5+1 대북사업 : 2015년 11월, 제주의 'Carbon free Island 2015' 선언을 계기로 '남북 에너지 평화 협력'을 추가적으로 제안,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제주도의 5+1 대북사업 비전을 견지함.
- 민선 7기 제주도 남북 평화 기류에 맞춰 5+1 사업 등 제주형 남북협력 사업 발굴·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2018~2022년 간 7,050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남북협력 중장기 실행방안 마련,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통일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19년 주요 추진 상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개최(10.23), 제주지역 대학생 및 청년 대상 통일 교육[한라-백두 청년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추진(4월~12월) 등)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자료)

3. 제주,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가족 연구 협력 모색

- 제주는 한라-백두의 상징성, 감귤, 평화의 섬 등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 노력과 지속적 고민이 있는 지역이며, 최근 신남북관계 하에서 제주의 향후 남북교류협력 방향에 대한 연구가 제주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고성준 외, 2018)
 - 제주의 특화력에 기초하여 삼지연군과 양강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복합교류 추진, 도시연대 방식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협력 로드맵의 필요성
 - 지자체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도 주민 중심의 민간기구 활성화
 - 제주가 추진 중인 5+1 대북사업의 적실성 검토 및 향후 이행 가능한 방안 제시
 - 대북교류협력 매뉴얼 제시
 - 신남북관계 하에서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교류협력 대상인 <북한> 명확히 알기
 - 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
 - 전담기구 신설 또는 보강
 - 교류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 제주-북한 지역교류 및 도시연대 추진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방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한반도 신남북관계 조성 분위기를 계기로 제주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의지가 높음. 이러한 시기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관점에서 지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정책적 아젠다 개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의제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임
 - 2014년 개원하여 개원 5주년을 맞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5년 동안 약 1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통일 분야의 연구는 미개척 상태임²⁾

2) 2018년 신남북관계 하에서 민선7기 여성 의제 발굴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여성 교류협력에 대한 공약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화되지는 못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여성 일자리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및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양성평등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의 삶 재조명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 등임.

- 이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이슈가 도민에게 체감되는 주제로서 활발한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실정,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 높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여성가족 관점의 아젠다 개발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임
 - 주지하다시피 여성가족 관점의 평화 추구, 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유엔은 유엔안보리 결의 1325(2000) 및 추가결의(8개)에서 평화안보 분야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행을 촉구하여 왔음
 - 지역 남북교류협력의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성 주류화 이행에 대한 논의는 2019년 제14회 제주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동아시아 여성의 평화운동에서 협력과 통합의 길을 찾다” 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고(이금순, 2019),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음(문영희, 2019)
- 제주에서 여성 관점의 통일 준비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협력 아젠다를 개발함에 있어서 통일 연구의 축적된 경험을 지닌 통일연구원과의 연구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교가 될 것임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동향에 기반하여 여성 관점에 제주지역 통일 아젠다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연구협력 주제들을 논의하자면 아래와 같음
- **제주지역 5+1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여성 참여 방안 모색**
 - 제주도의 5+1 대북사업은 △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추진, △ 제주포럼 북한인사 초청, △ 남북 에너지 평화 협력의 여섯 가지로 추진 계획 중임. 우선적으로 이러한 도의 핵심 대북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협력이 필요함

- 제주포럼 북측 여성 인사 초청 : 2019년 제14회 제주포럼에 북측 인사 초청을 위한 제주도의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불발, 2020년 제15회 제주포럼에는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의지가 큼. **제주포럼 북측 인사 초청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실천 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함
- 북한 지역 교류 및 도시 연대에 여성 참여 : 최근 제주 5+1 대북사업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논의로서 북한의 구체적인 지역과 도시 연대(삼지연 군, 양강도 지역)에 대한 논의가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6차 산업, 관광 분야 여성 사업체와 기업인이 많고 이는 향후 북한 농촌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이 높을 것임. 제주도가 북한과의 지역 교류 및 도시 연대를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와 북한 여성의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협력이 필요함

○ **제주-북한 여성·가족 역사 연구를 통한 상호 이해와 이미지 제고 방안 모색**

-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 외에도 제주-북한 간 상호 이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 관점의 연구 분야와 주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 해녀어업의 북한 출가 물질 역사 등 여성가족의 북한 이동 역사 콘텐츠 발굴 : 제주 해녀의 어업은 제주 역사에서 제주사회와 가정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고, 해녀의 물질은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일본, 청도, 러시아 등으로의 제주 해녀의 출가 물질에 대한 연구와 학술 포럼 등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북한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이 되고 있지 않음. 제주-북한 간 해녀 물질 진출의 역사 등 두 지역 간 실질적인 인적 왕래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 못지않게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제주-북한 여성·가족의 왕래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북한 연구 자료 접근성과 북한 연구 분야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일연구원의 연구협력은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
- 제주도내 이산가족, 이북5도민 가족, 4.3 가족 연구 등 분단 유산에 대한 여성가족 관점의 연구 및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연구 : 제주도는 6.25 전쟁으로 도내 인구의 절반 규모에 육박하는 피난민이 제주로 이주했던 역사를 비

롯, 4.3이라는 분단 유산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음.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한 반도와 제주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단 유산이 제주의 가족과 사회에 미친 역사에 대한 조명 및 분단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가 필요함. 사회적 트라우마의 역사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가족의 이별, 전쟁과 4.3 이후 사회 재건 과정에서 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 파트너들 간의 연구협력이 필요함

○ 통일, 평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협력

-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이슈에 대한 주민 체감형 공감대 형성은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
- 이북 5도민, 북한이탈주민 등의 실태조사
 - 2019년 기준, 제주에는 황해도, 평남, 평북, 함남, 함북도 5도민 3,720세대, 11,242명이 거주하고 있음. 이북도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 오래되어 사무소 행정상의 이북도민 출신 인구를 11,242명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는 현재 약 2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북도민·이탈주민 만남의 날, 실향민 문화축제 참가 지원,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가족 결연식,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및 안보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6월말 기준, 제주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22명(여성 250명, 남성 72명)으로 나타남. 하나센터를 통해서 정착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탈주민 대상 제주사회 거주 경험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는 만큼, 도내 거주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제주사회 거주 경험과 통일 인식, 제주사회 이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부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사업이나 4.3의 역사, 제주의 자연 환경 등에 대한 인식보다는 북한에서 가졌던 다소 획일적이고 고착된 한국/제주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고성준 외, 2018)
- 제주도민의 통일 인식 실태 조사 : 제주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조사될 필요가 있음.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제주사회에서 북한과 통일

에 대한 인식 파악과 통일을 위한 제주사회의 준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클 것임

- 통일과 평화에 대한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나 아젠다 개발은 인권, 다양성, 성평등 등의 높은 수준의 사회문화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여성가족 전문가들과 통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참고 문헌>

고성준 · 김영수 · 홍재형. 2018. 『신남북관계 하에서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제주연구원.

나용우 · 홍석훈 · 박은주. 201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문영희. 2019. “여성, 분단 74년을 말하다 - 평화공감과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자료(2019.10.23.)

이금순. 2019.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14회 제주포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사회치유로서 평화통일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자료(2019.10.23.)



토론

- 토론 1 : 최은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토론 2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토론 3 : 이금순(통일연구원/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25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25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